

산들

| 퍼낸이, 퍼낸곳
한국기독교장로회 예가교회

| 주소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22-41
☎ 756-7707
Fax 756-7607

| 인터넷
<http://yega.org>

| 담임교역자
조익표

| 부교역자
장영진, 조영희

예가교회

**예가교회는,
비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새 가족으로 거듭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함으로써,
완전히 충만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가족으로 성장한다.**

금주의 말씀	2
매일기도	6
성경 자세히 읽기	8
중보기도	11
가족소식	12
발에 감추인 보화	14
예가소식	16

“좋아하는 일”

인간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인 만큼 좋아하게 된다. 처음에는 친구가 좋아해서 좋아하거나 또는 우연히 좋아지기도 하고, 좋아하기로 작정하고 노력해서 좋아진 것도 있다. 어떤 것을 처음 좋아하는 이유는 천차만별이지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공통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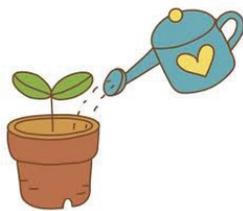
교역자 섬김 주간의 목표는 교역자를 섬기는 것이다. 섬김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우들이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살아서 자기의 삶을 행복과 기쁨과 감사로 채우는 것이 교역자들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가르침을 따라 워크북을 100% 실천해서 교역자에게 감사를 전하자고 가족들과 협의했다. 그런데 지난 교역자 섬김 주간에는 준비한 감사 선물을 3주째 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미뤄지다 보니 부작용이 생겼다. 기도를 매일 하는 것과, 계획한 일들을 하며 교우들을 더 좋아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기도 횟수를 채우기 위해 형식적으로 하기도 했다. 그러나 하다 보니 정성을 들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좋아졌다.

계획한 일 중 하나가 교우들에게 먹거리를 선물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포도가족, 식탁가족, 편집부처럼 내가 속한 그룹에 과일이나, 간식을 대접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좋아

할 음식을 선물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 들어서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에게 대해 더 생각하고, 더 좋아지는 경험을 했다. 최근에 학생부 중 한 명에게 무엇을 선물할까 생각하다가 나초칩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여러 가지 맛의 나초칩을 선물했다. 그의 좋아하는 모습에 기분이 좋아졌다.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그를 더 좋아하게 되었다.

한날 화초를 키우거나 애완동물을 키우는 데도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 처음에 예쁘고 좋아서 집에 들여놓았다가도 돌보지 않으면 금새 시들어 버린다. 그러나 시간과 정성을 들여 가꾸면 들꽃이라도 멋진 작품이 된다. 애완동물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 사람은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도 좋아지지 않을 수 있다.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인 만큼 욕심이 생긴다. 그것을 상대방이 채워주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이 생긴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가 보다. 교역자 섬김 주간 100% 워크북을 실천하느라 기도하는 일을 꾸준히 하며 가족들과 교우들이 더 좋아했다. 참 좋은 부작용이다. 이렇게 사람에게 된 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꾸준히 해나가야겠다. 화초나 애완동물에게 정성과 시간을 들이듯 정성껏 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이 주는 행복과 감사와 기쁨으로 내 삶을 가득 채워야겠다.





■ 오늘 낭독한 레위기 25장은 그 유명한 ‘희년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법전은 성결법전이라 부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레위기 19장에서 26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성결법전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희년법인 셈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이 거룩하



레위기 25 : 8 - 13
베드로후서 3 : 8 - 13
요한복음서 12 : 1 - 8

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한다’는 선언을 토대로 하며, 그 핵심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희년법은 성결법전의 핵심계명이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낭독한 레위기 25장 본문은 그 서두에 해당하지만, 23절 이하를 읽어보면, 토지문제, 주택문제, 노예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땅도 집도 사람도 모두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풀어해방하고, 돌보라는 창세기의 가르침이 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거시적으로 토라를 들여다 보면, 희년법은 출애굽기 20장의 십

계명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말씀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토라의 구성은 시작과 끝이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시작인 ‘야훼 하나님은 노예들의 하나님’이라는 선언의 결론으로써 레위기의 희년법은 노예해방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계명, 즉 토라의 본뜻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시작되어 레위기 26장에서 끝나는 모세가 받은 토라의 핵심을 정확하게 집은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신명기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덧붙여 대려고 했던 공관복음서들의 의도는 바울이 요약한 핵심계명이 야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점, 즉 출처를 정확히 하려는데 있었던 것이라 봅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은 헬라의 사랑에 관한 철학이나 고대근동의 사랑에 관한 가르침을 다루는 종교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야훼 하나님에게서 비

롯된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는 복음서 시대에 바울의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문제들이 있었고, 이에 대한 해법이었다고 봅니다.

토라는 하나님이 왕이나 권력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노예들의 하나님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라에서 ‘사랑’을 말할 때, 그것은 ‘노예해방’에서 시작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지 않은 노예가 가능할까요? 고대 로마사회에서 글래디에이터, 즉 검투사 노예들 중에는 돈을 많이 번 스타 검투사도 있다고 전하지만, 그들은 그 돈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샀습니다. 돈이 있으면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다 노예인 것은 아니지만, 노예들은 다 가난했습니다.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것은 교회가 노예들을 해방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바울은 교회에서는 헬라인도 유대인도 없고, 노예도 자유인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이나 잣대로 교회에 들이대는 것이 일체 허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공관복음서들이 바울의 가르침의 뿌리를 이야기하려고 들이던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명기의 핵심계명은 신명기가 어떤 배경에서 탄생되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레위기의 성결법과 그 결론부인 희년사상의 중요한 배경이기도 하고,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 그리고 교회가 누렸던 삶의 중요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신명기는 주전 6세기의 유대인들, 즉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형성한 ‘디아스포라’에서 탄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토라 전체가 그 시기에 문서로 기록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사울과 다윗에서 시작된 왕국시대를 거치면서 어찌서 망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 원인은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상숭배’는 당대에 가장 잘 나가는 바빌론의 종교를 비롯한 거대 제국들의 종교를 의식한 표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빌론의 치하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바빌론의 왕이 보급했던 국정교과서가 ‘에누마 엘리쉬’나 ‘길가메쉬 서사시’ 같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저것은 모두 가짜다. 거짓이다! 우상숭배! '라 선언하며 대안교과서를 내놓았는데 그것이 '신명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누마 엘리쉬'나 '길가메쉬 서사시' 같은 고대의 신화들의 핵심은 '약육강식'입니다. 강자는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약자는 신이 버린 사람입니다. 신이 버린 존재는 노예로 전락했는데,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으로 취급했습니다. 물건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부러먹을 수도 있고, 죽여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힘을 과시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승자는 패자의 재물과 자원지를 약탈했고, 패국의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 승자가 약탈한 자원지에서 일했고, 건축물을 짓거나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는데 노동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토라는 이 같은 약육강식 시스템의 기원을 도성에서 찾고 있고, 도성을 세운 가인까지 소급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형이 동생을 살해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버렸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참 좋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길로 갔습니다. 여기서 선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고, 악은 자기에게 불리한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악으로 규정했고, 그 결과 동생을 제거해야 할 악으로 간주하여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성을 짓는 길로 갔습니다.

성경은 가인에게서 인간 문명의 시작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사회에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으로 규정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악으로 규정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권력을 쥐고 있는 자입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에서는 승자가 곧 선이고, 정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세계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있으며, 아울러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들과 더불어 신음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는 토라를 가지고 양육강식의 세계, 힘센 자가 선이고 정의인 세계에서, 힘센 자

를 축복하고 지원하는 신들의 세계에서, 그것과는 정반대의 세계, 그리고 정반대의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뜻이 구현된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유일신 사상은 이와 같은 하나님 신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라가 전하는 하나님은 유일한 참 하나님이고, 그 분은 노예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다른 신과 경쟁할 필요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절에 가서 불을 지르고, 약소국을 침공하는 빨짓도 하지 않습니다.

'토라'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길 이외에는 어떤 길도 '노예들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하고, 파괴하는 일은 바빌론의 신인 마르둑을 믿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와 교우들과 다투는 것도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일은 다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일이고, 이를 우리에게 주신 분은 노예들의 하나님이며, 따라서 사랑은 노예해방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출발부터 노예가 없는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이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도 실현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희년법이 있었지만, 정작 희년법을 이룬 사람들이 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 낭독한 베드로후서는 '주님의 날'을 전하고 있는데, 이는 희년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날'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앞당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날이고,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그 날의 하늘과 땅은 전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노예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한 마디 말씀만이 진리로 선포되고, 구현되는 하늘과 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낭독한 요한복음에서 마리아가 당시 노동자의 일 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습니다. 나는 마리아의 행위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산 사람처럼,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희망을 걸었

사랑하지 않는 일은 다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일이고, 이를 우리에게 주신 분은 노예들의 하나님이며, 따라서 사랑은 노예해방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출발부터 노예가 없는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던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하나의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따라 사는데 목숨을 거셨던 예수님에게 마리아는 자기 전 재산, 즉 밭줄도 목숨 줄도 다 건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의 재산은 물론이고 목숨까지 다 걸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모든 희망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유다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마리아가 낭비한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이 부자청년을 부르실 때에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유독 요한복음에만 없고, 비슷한 내용이 여기 요한복음에서 유다의 입을 빌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여기서 유다가 도둑이라고 규정합니다. 그가 도둑이라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믿지도 행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믿어라, 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센 자가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윤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은 법과 규칙과 윤리를 넘어서 있습니다. 법 지키는 고위 공무원 없고, 법 지키는 판사나 변호사도 없습니다. 돈과 권력을 쥔 사람들은 법을 다루는 위치에 있지, 법의 통제를 받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마치 세상의 힘센 자들이 힘을 휘두르는 것처럼, 마리아에게 법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서, 남에게 법을 따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의 말은 씨도 먹이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유다의 말이 씨도 먹이지 않았고, 개무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유다의 말이 인정되는 교회라면,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옛 하늘과 옛 땅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마르둑의 나라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의 말이 동일한 무게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말의 무게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말의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는 내가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을 사랑하지 않는 만큼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곳입니다. 교회는 오직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한마디 말씀만이 무게를 갖습니다. 그 밖에 다른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르둑의 나라입니다. 약육강식이 생존의 길입니다. 그 결과 인간과 모든 피조물이 괴로움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사랑만이 생존의 길입니다. 그 결과 교회로 모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처럼 ‘참 좋다’ 하는 인생을 누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들이, 이 교회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대림절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왜 괴로움에 탄식하며 죽어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도 없고, 몸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교회가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아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더욱 모아,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님의 가르침에 몰두합시다. 서로 좋아함으로 사귀는 일과 좋아함으로 먹이는 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교우들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울처럼 교우들을 기억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일에 집중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는 노예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사는 교회를 누립시다. 이것이, 베드로후서가 전한 것처럼, 우리가 소원하는 주님의 날을 앞당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의 사랑과 기쁨을 키워갑니다



화음 김진승: 푸른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신나 류수옥: 불꽃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푸른 김영남: 화음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불꽃 김강진: 신나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한가온 양세련: 시원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시원 박주현: 한가온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미리내 황호영: 에스더님과 준비해서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에스더 권영아: 가족들에게 감사 문자를 하겠습니다.

드림 황현미: 소망님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 하겠습니다.

소망 김강민: 일대일 만남 짝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 하겠습니다.

은석 석순화: 가족들과 일대일 만남을 즐겁게 하겠습니다.

뿌리 조민경: 진주님과 사귀는 시간을 갖고 선물을 하겠습니다.

초록 한춘희: 씨앗님에게 감사의 선물을 하겠습니다.

생명 김성원: 뿌리님에게 감사의 선물을 하겠습니다.

씨앗 김은영: 고래님에게 선물을 하고 편지를 쓰겠습니다.

진주 이인화: 사랑님과 사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 최현숙: 진주님에게 크리스마스 카드와 예쁜 선물을 하겠습니다.

해 석재호: 모퉁이돌님에게 안부 인사를 하고 성경구절을 나누겠습니다.

모퉁이돌 이영교: 해님에게 남방을 선물하겠습니다.

달빛 김주영: 아모님에게 감사 문자를 하고 선물을 하겠습니다.

아모 박주은: 달빛님에게 반찬 선물을 하겠습니다.

마리아 강수진: 보라님에게 감사 문자와 선물을 하겠습니다.

새롬 류정희: 보라님 카스에 덧글을 달고 믿음으로 살아온 삶을 전하겠습니다.

맑은 최영란: 섬기는 기쁨으로 가족들과의 만남을 즐기겠습니다.

샘물 박행수: 맑은님과 만남을 갖겠습니다.

늘빛 김숙정: 맑은님과 만남을 갖겠습니다.

샤론 김진수: 맑은님에게 선물을 하겠습니다.

독립군 이창주: 나무님에게 선물을 하겠습니다.

성실 신정아: 찬미님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사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온유 유형미: 맑은님과 만남을 갖겠습니다.

나무 하태용: 맑은님과 만남을 갖겠습니다.

좋은 정상도: 광야님에게 반찬을 선물하겠습니다.

빌립 이종진: 좋은님을 대접하겠습니다.

찬미 정현옥: 바다님에게 감사 문자와 선물을 하겠습니다.

바다 김진영: 빌립님에게 감사 문자와 선물을 하겠습니다.

즐거운 이한재: 희은님에게 감사함을 전하겠습니다.

마르다 석순명: 유랑님에게 티슈를 선물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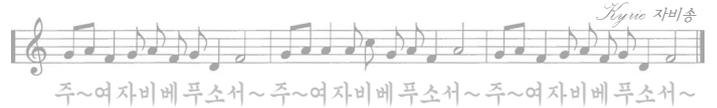
카라 이희영: 요한님에게 감사 표현을 하겠습니다.

요한 조현: 등대님에게 감사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희은 박용제: 유랑님에게 감사 표현을 하겠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



아침 기도

시편찬양

시편 80편 1-7절
소리내어 천천히

아, 이스라엘의 목자인신 주님,
 요셉을 양 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펼쳐 주십시오.
 우리를 도우러 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주 만군의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의
 백성들이 올리는 기도를
 노엽게 여기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이웃에게
 시비거리가 되게 하시니,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첫 기도

주님, 고난가운데 있는 세상에 구원의 희망으로 오시는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고난 받으시고, 그 고난으로 구원의 희망이 되셨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주님의 길을 배우고 따르게 하소서. 세상의 희망이 되라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대로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고, 고난 받는 세상에 희망의 빛을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독서송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말씀 밝~히 알~도록 늘도와 주~소서~

독서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21-22 / 23-24 / 25-26
 27-28 / 1-2 / 3-4
 소리내어

독서송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말씀 밝~히 알~도록 늘도와 주~소서~

주기도

소리내어 천천히

하루의 계획 & 청원 기도

기도노트에 적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일상계획과 말씀실천계획을 적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를 위한 청원을 적은 후,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 예가교회가 주중에는 사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에는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와, 구원의 잔치를 준비하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조차 잘못하는 죄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스스로 괴롭히는 과거의 속박을 끊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미래를 향하여, 사랑하는 존재로 살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돈과 하나님 중에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섬겨서, 가진 것을 나누게 하소서.

† 온 세계와 한국의 교회들이, 화해와 일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하소서.

† 한국의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에 깊이 배인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분단의 고통을 평화적 통일로 치유할 수 있게 하소서.

† 예가교회의 교역자들이, 목숨을 다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능력을 주소서.

†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인도자들과 재정과 수고로 덕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기쁨을 주소서.

† 예가교회의 모든 활동이, 예수님의 새 가족과 새 고향의 꿈을 만들어 가는 일이 되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필요들을 채워주소서.

† 예가교회의 가족모임이, 사랑을 행하며 꿈을 이루어가는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되도록, 복 내려 주소서.

† 예가교회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록, 지켜주소서.

† 예가 식구들이, 교회의 비전으로 하나 되어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비송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마침 기도

주님, 지난밤 주님 안에서 편히 잠들게 하시고, 부활의 새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 드립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하게 하소서. 길을 걸을 때나, 차를 탈 때나, 늘 주님의 말씀에 묵상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되게 하소서. 아멘.



밤 기도

시편찬양

시편 80편 1-7절
소리내어 천천히

아, 이스라엘의 목자인신 주님,
요셉을 양 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펼쳐 주십시오.
우리를 도우려 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주 만군의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의
백성들이 올리는 기도를
노엽게 여기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이웃에게
시비거리가 되게 하시니,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첫 기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주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릴 줄 모릅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감사의 기도

기도 노트에 적고 기도합니다.

하루를 돌아보아, 잘못된 일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잘된 일에는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적은 후,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기도

천천히, 내용을 따라

마침 기도

생명의 주님, 주님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낮 동안 활기 있게 하신 주님, 자는 동안에도 지켜 주시어 편히 쉬게 하소서. 비오니, 오늘 이 밤도 나를 찾아오시어, 주님 은총의 힘으로 새벽에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자세히 읽기

제 71 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33)

교회의 잘못은 할 수 있는 것은 버리고, 할 수 없는 것을 취했다는 데 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모두 할 수 있는 일들이고, 예수님은 할 수 있는 일들을 가르치시고, 모범까지 보여주셨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쪽으로 넘어갔다.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에게 평화와 위로를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종교성의 표현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당장 한 사람이라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일은 버리고, 대신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 경건하고 종교적인 삶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 거창한 슬로건을 내세우는 일로 내가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대리만족을 하려고 한다.

생태, 경제적 공생, 전쟁종식 등을 주제로 모여서 토론도 하고, 합의문도 발표한다. 그렇게 해서 현실적인 권력집단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현실적인 권력집단을 움직여서 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인 평화의 길이라 여긴다.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예수님은 현실적인 권력집단을 움직여서 평화로 가는 길을 가르친 적이 없다. 예수님 시대에도 현실적인 권력집단을 움직여 보려고 했던 이들이 적지 않다. 우리가 잘 아는 침례자

요한도 헤롯왕정의 잘못된 처사를 고쳐보려고 시위하기도 했다. 바리새파, 예새네파, 사두개파 등 이스라엘의 주요한 분파들도 현실적인 권력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고, 평화를 얻으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단 하나의 계명만으로 평화의 길을 제시했다. ‘이웃’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고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가 있다. 집단적이고 추상화된 대상을 정해놓고, 그 대상을 사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두고 구체적으로 사랑하라고 한 것이다. 사랑의 출발점이 ‘한 사람’부터인 것에 주목해야 한다. 예수님이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리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평화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세상에는 평화의 길이라 불리는 길들이 많다. 미국도 평화의 길을 간다면서 세계경찰 노릇을 하고 있고, IS (Islamic State)도 평화를 위해 공공의 적들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세계 곳곳에서 무장투쟁을 펼치고 있다. 생태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인간과 자연계가 공존하는 평화의 길을 주장하고 있으며, 맑시스트들은 경제적 불평등을 기초로 한 계급이 사라져야 평화가 온다고 믿는다. 또한, 남성, 여성, 성소수자들이 서로를 차별하지 않는 세상이 평화라고 믿는 이들도 있다. 세상에는 기독교를 포함하여 수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각자

자기들의 교리가 온 세상에 관철되어야 평화가 온다고 믿는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평화의 길은 그 수많은 평화라고 주장하는 길들 중에 하나로 보일 것이다. 물론, 모든 평화의 길들은 각자 평화에 대한 이미지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다. 모든 평화의 길이 다 옳은데, 예수님의 길은 그 중에 하나의 선택지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평화의 길은 다 틀린 것이고, 예수님의 길만이 참되다고 우기려는 것도 아니다. 교회는 단지, 예수님이 가르치고, 사신 삶이 좋아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전한 평화의 길이 좋아서 따르는 것이다. 물론, 좋다고만 하고, 실제로 내 몸으로 사는 삶이 없다면 좋다는 말은 거짓말일 것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이 좋아서,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로 산다. 이 기본적인 명제가 성립되지도 않고, 구현되지도 않는다면, 그런 교회는 그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거나 교회가 아닌 다른 것이다.

그런데, 교회는 중세를 기점으로 권력과 벗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전한 평화의 길과는 다른 평화의 길로 갔다. 즉, 하나님 의 아들로 사는 평화가 아니라, 누구나 힘만 있으면 손쉽게 성취할 수 있는 평화의 길을 간 것이다. 학교나 동네의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청소년들 사이에 자주 싸움이

벌어지곤 했는데, 그들 가운데서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주먹이 센 사람이었다. 그래서, 동네의 평화를 이룰 영웅이 되려고, 우열을 가르는 싸움이 일어나곤 했던 것이다. 물론, 그 평화라는 것은 승자의 요구나 이익이 관철된 평화이다. 간혹 승자에게 저항하는 사람이 생기곤 하는데, 그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정의의 심판을 감내해야만 한다.

어린 아이들의 세계는 어른들의 세계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다. 어른들의 세계는 어린아이들의 경우보다 더욱 철저하게 힘의 질서로 유지되는 세계이다. 세계적인 단위에서는 가장 무력이 강한 나라가 평화의 사도로 군림할 수 있으며, 가장 많은 이익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규칙들은 모두 강대국들이 만들어 낸 것들이다. 약소국들은 강대국들이 정한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 강대국들이 정한 규칙을 자유롭게 어길 수 있는 나라는 강대국 자신 뿐이다. 약소국이 그 규칙을 어기면 가혹한 경제, 정치적 심판을 받게 된다. 세계대전은 강대국들의 이해타산이 합의를 볼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어 발발한 전쟁이다. 그 거대한 규모의 전쟁 속에서 약소국들은 고래싸움에 등이 터지는 새우 꼴이다. 1, 2차 대전 이후로 3차 대전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까닭은, 나름대로 힘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지적으로는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2차 대전 이후에도 세계는 내전 내지는 국가간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초강대국들이 나서서 군사적 경제적 목적으로 전쟁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작은 불들일 뿐이고, 큰 불로 확산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한 나라 안에서도 가장 힘센 그룹이 가장 많은 이익을 본다. 정치권력, 경제권력,

언론권력은 3대 권력이라 불리는데, 서로 권력의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한 나라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국민’은 권력의 카르텔을 형성한 집단들의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하고 있는 셈이다. 생산에 대한 부담은 국민이 대부분을 지고 있지만, 그 수혜자는 권력집단이다. 이는 당연한 귀결이다.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힘에 의한 평화는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평화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평화는 ‘무력에 의한 평화’이다. 오늘날 미국이 독보적인 초강대국으로 군림할 수 있는 까닭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다. 가장 무력이 세기 때문이다.

무력에 의한 평화만이 현실로 통용되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용서’가 일어난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힘이 곧 평화의 길이요, 정의인 세상에서는 용서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돈의 흐름은 권력이 있는 곳에 집중된다. 권력이 있는 자들은 돈을 꾸지 않는다. 그들은 그냥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빼앗으면 된다. 또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에게 자발적으로 갖다 바치기도 한다. 그래서, 돈은 권력이 있는 곳에 모여든다. 그러나,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꾸어야 한다. 그들은 돈을 빼앗거나 달라고 할 힘이 없다. 돈을 꾸는 사람들 중에는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마련이다. 갚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까닭은, 채무자가 게을러서도 아니고, 악해서도 아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착하게 살아도, 돈이라는 것은 권력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힘있는 사람에게는 후하지만, 힘없는 사람에게는 인색하다. 그러나, 세상은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것을 악으로 규정한다. 법적으로는 범죄

로 규정하고, 윤리적으로는 악으로 규정한다. 혹은 게으름이나 무능력으로 폄하하기도 한다.

한국 같은 경우, 재벌이 은행에서 수백 억이나 수천 억을 꾸고도 갚지 않거나, 거액을 탈세하면 법적으로 경범죄 수준에서 다룬다. 재벌은 사회에 공헌한 바가 있기 때문에, 즉 정의롭고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봐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벌은 경제 리더로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존재라는 이유로, 또한 국가발전과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정의롭고, 선한 존재로 대우받는다.

반면에, 먹을 것이 없어서 슈퍼마켓에서라면 몇 개를 훔친 사람은 감옥에서 십 수년을 살기도 한다. 오늘날에 장발장과 같은 사람들은 소설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하며, 심지어는 허다하다. 그들이 법적으로 중죄로 다루어지는 까닭은, 그들에게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 힘이 없다는 것은 곧 불의이며, 악이다. 게으름이며, 무능력이다. 사회적으로는 짐스러운 존재이며, 암적인 존재다. 그래서, 재판정에서는 그들에게 과심죄까지 덧씌운다. 판사들은 정의의 사도가 되어서, 악의 무리들을 중징계로 응징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한 용서의 삶은 권력의 질서, 돈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킨다. 정의와 불의, 선과 악의 구분도 무너뜨린다.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질서 전체가 붕괴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권력의 편에서 볼 때, 누가 용서의 확장을 달갑게 여기겠는가?

이 세상에 노예가 넘치는 까닭은 용서가 없기 때문이다. 용서가 없어서, 권력이, 돈이,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길을 가르치셨다. 형제의 빛을 탕



감하고, 형제가 돈을 꾸어달라고 하면 아예 돌려받지 않을 생각으로 주라고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방식이고, 평화의 길이라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 길을 가셨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예수님이 사신 삶을 따라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믿는다는 표현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 근거한 표현이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행동의 부재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어째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믿는 일이 적은가? 권력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 말고는 달리 떠올릴 만한 마땅한 이유가 없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 일을 고를 때에는 돈이 많이 되는 쪽을 택하게 마련이다. 돈이 목적인 사람이 일을 고르는데, 일부러 돈이 되지 않는 쪽을 택하는 경우는 없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애시당초 돈이 목적이 아니거나, 아니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칭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20퍼센트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을 좋아하고, 따르는 이들이 많지 않은 까닭은 무엇이었는가? 그들 대다수가 권력을 목표로 모여든 것이기 때문이다. 무력이 되었건, 재력이 되었건, 매력이 되었건, 권력을 구하려고 모여든 것이다. 권력이 목표인 사람에게 구원이 무엇이었는가? 권력을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니겠는가? 힘센 사람이 되는 것이 소원인 사람에게 힘이 세지는 것이 구원이고, 돈 많은 부자가 되는 것이 소원인 사람에게 부자가 되는 것이 구원이며,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소원인 사람에게 매력을 얻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이라 함은 그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었다는 말이다.

권력을 더 많이 얻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 교회로 온 까닭은 권력을 얻기 위함이다. 권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 교회가 나의 권력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는 아주 어리석거나, 아니면 기적으로 전향한 사람일 것이다.

교회라고 하면 당연히 믿음의 일들을 흔하게 보게 되는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는 거의 생기지 않았다. 적어도 4세기 이후에는 확실히 그렇게 되었다. 사랑을 소원하고, 용서(빛의 탕감)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이 교회이겠지만, 교회로 모이는 목적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교회에서 믿음을 보는 일도 흔치 않은 일이 되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목사 혹은 사제인데,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권력을 거슬러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을 가르치고, 살아내면서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와 지금의 기독교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성경의 경고는 항상 성경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향해 있는데, 그 경고에 있어서 오늘날의 기독교 역시 예외는 아니다.

교회가 사랑이 아니라 권력을 따라간 다음부터, '사랑하라', '용서하라'와 같은 가르침들은 전혀 다른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은 결코 권력을 만들어낼 수도 없거니와, 있는 권력마저도 해체시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런데, 오늘날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은 오히려 권력을 강화하는데 도구로 쓰이고 있는 판이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사랑하라, 용서하라 는 가르침의 내용을 살짝만 바꾸면 가능하

다. 대상을 확대하고 추상화하면 더욱 쉽다.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인류사랑이나 민족사랑이나 나라사랑과 같은 이념적인 주제로 바꾸면 된다. 내 옆에 있는 형제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아도, 멀리 타국의 난민을 돕는 기부금을 보내는 것으로 사랑을 대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도 된다. 모든 사람을 미워하고도 그 교회를 다닐 수 있다. 어떻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사랑 때문이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교회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는 내가 사랑하는 형제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해도 상관없는 것이다. 다만, 나는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지만, 멀리 타지에서 가난이나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후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다. 혹은,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사랑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는다. 교회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사적으로 예배하기 위해 출석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사회봉사 활동이나 자선금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돈이 아까우면, 세상 곳곳의 선교지 상황을 기록한 증보기도 카드를 놓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아니면, 전도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니, 교회당으로 사람들을 데려다 놓는 것만으로도 사랑하는 삶을 대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얼핏 보면, 오늘날 교회는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엄밀하게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방식은 전혀 채택되지 않고 있다.

용서도 빛의 탕감이 아니라 심리적인 용서로 바꾸면 된다. 구약성경에서는 돈거래

나 빛보증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니, 아예 거래를 하지 않으면 빛의 탕감 같은 주제는 이슈도 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성경은 꾸어주지 말고, 그냥 주라고 한 것인데, 그냥 주라는 것은 쏙 빼놓고, 돈거래도 빛보증도 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안 꾸어주면 되는 것이다. 대신에, 형제가 나에게 불쾌한 말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한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꼭 참고 봐주는 것이 용서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없는데, 용서하는 이상한 일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심지어, 형제에게 잘못을 하고도,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 중에 잘못을 빌고 용서를 받았다면서 정작 당사자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일도 비밀비재하다. 용서 역시 예수님이 가르치고, 실천한 용서와는 달라도 많이 다른 것이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권면들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여전히 선포되고 있다. 다만, 조금씩 바뀌어 있을 뿐이고, 큰 줄기로 보면 방향이 다른 것이다. 얼마나 방향이 다른가 하면, 실상 정반대이다. 한쪽은 사랑을 바라보고 있고, 다른 한쪽은 사랑의 정반대편에 있는 권력을 바라보고 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지켰던 할라카의 613개 계명에는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에 대한 가르침은 따로 없다. 즉, 모두가 우열을 다투는 계명이라는 점에서, 가능한 한 모두 지켜야 하는 계명들이다. 그런데, 이 계명들은 어디를 향해 있는 것들일까? 도대체 유대인들은 무엇을 얻으려고 할라카를 지켰던 것일까? 그들은 할라카를 지키는 길이 살 길이고, 궁극적으로는 평화(shalom)로 가는 길이라는 믿음으로 지켰다. 즉, 할라카를 지킬 때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할라카를 지키지 않을 때에 평화가 깨진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간과되고 있다. 할라카를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거룩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가? 여기사서 대답은 다시 할라카로 되돌아 간다. 이렇게 되면, 무한순환이 된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할라카부터 깨뜨린다. 할라카의 본질을 가지고 할라카를 재구성한다. 즉,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유일한 기준(케논)으로 삼고 할라카를 해체하고 재구성한다. 할라카에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계명을 모든 계명들의 본질로 삼은 것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할라카를 다 지켜도 무효라는 것이다. 할라카를 지켜서 얻는 '생명'이 사랑하는 존재로 사는 생명이 아니라면, 그 역시 생명이 아니다. 할라카를 지켜서 얻는 평화가 사랑하는 존재들의 세계가 아니라면, 그 역시 평화가 아니다. 그렇다면, 누가 사랑하는 존재인가?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사랑을 자기 삶의 근본으로 삼고 누리는 존재이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유대인이라는 혈통적 경계를 깨고, 성령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누가 성령을 받는가? 사랑을 소원하고, 사랑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다. 사랑을 소원하고, 사랑을 믿고 행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부여될 때에, 그는 기쁨으로 사랑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이다. 그러나, '사랑'이 빠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공허해진다. 모든 것이 생명력을 잃고, 평화도 깨진다. 사랑이 빠지면, 내 목숨을 불살라버쳐도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바울은 노래하지 않았던가?

“[1]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팡과리가 될 뿐입니다. [2]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3]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줄지라도, 내가 자랑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고전13:1-3)

예수님이 보시기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보여준 열심이라는 것은 사랑이 빠진 열심이었다. 그들은 사랑만 쏙 빼놓고, 계명을 빠짐없이 지킴으로써 생명을 얻고, 평화를 누리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 사랑이 없이는 생명도 없고, 평화도 없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함께 나누고 싶은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족의 1분 스피치 & 사랑 이야기

맑은가족

나무님 집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나무님이 가족을 안마를 하는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며 즐거웠다. 아침 기도 후 가족 카톡 방에 인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니 기분이 좋았다. 지난 주일에는 청국장을 만들어 다이어트 식구들과 나누어 먹으며 나눔의 신으로 살아 좋았다. 샘물님을 더욱 좋아하기 위해 샘물님께 마사지를 해드리기로 계획하였다. 샘물님을 마사지해드리고 나니 샘물님을 더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 좋았다. 샘물님을 좋아하여 간식거리를 준비해서 샘물님과 만났다. 아침에 야고보서를 읽고 좋은 마음을 구하며 샘물님에게 3일간 문안인사를 했다. 맑은님을 좋아해서 추위를 조금이라도 덜 느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극세사 발열담요를 선물 했더니 맑은님이 좋아해서 나도 기뻐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세례를 받고 입교한 교인이라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몸으로 살아내며 또한 기도를 쉬지 않는

생활이 뒷받침되어야 육체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다. 찬미님에게 선물을 하겠다, 성실님, 마르다님에게 목은지를 선물 하겠다, 에스더님에게 선물을 하겠다, 식탁가족 간식을 준비 하겠다, 희은님에게 PC를 설치해 주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포도가족

새롬님 집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새롬님을 더 좋아하기 위해 성경구절과 안부인사를 카톡을 통해 전할 계획을 세웠다. 가족들을 생각하며 대접하는 새롬님에게 안부를 전하며 감기가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메시지를 전하니 기분이 좋아졌다. 달빛님과 일대일 만남을 준비하며 기도와 호흡기도를 꾸준히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선물을 준비하면서 달빛님을 생각하며 좋았다. 새롬님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선물을 전하기로 계획했다. 일대일 만남을 준비하고 새롬님 생각을 많이 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반찬을 선물하며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하이델베르 교리의 내용을 보며 개신교도들의

생각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부활에 대한 입장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식탁가족 후식을 준비 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화음가족

불꽃님 집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푸른님에게 ‘휴족의 시간’이라는 선물과 덧신을 선물하였다. 시원님에게 비비 크림과 딸기향 립버터를 선물하였다. 큰열매님에게 커피믹스와 땅콩전병을 선물로 보냈다. 한가온님과 믿음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육체의 욕망을 말씀과 기도로써 다스릴 수 있다는 말이 인상 깊었다. 가톨릭과 개신교 교리에서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는 방식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 이후 성도들의 죽음은 질적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이는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고 싶어한 바울의 입장과 다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가르침을 믿고 기도하겠다. 바울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는 것에 감사하다. 아이언맨(정준현)에게 간식을 사 주겠다, 사론님에게 감사 표현을

하겠다, 샘물님에게 감사 표현을 하겠다, 에스더님에게 이사 선물을 하겠다, 맑은님에게 감사 표현을 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성실가족

광야님 집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광야님을 더욱 좋아하기 위해 광야님에게 굴과 김치 속을 함께 선물했다. 주일마다 크리스마스 찬양 연습을 진행하는 광야님이 힘이 나도록 시원한 음료를 준비했다. 매일 찬양 연습을 하다 보니 광야님이 더욱 좋아진다. 광야님의 섬김에 감사하는 일대일 만남을 하였다.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삶을 나누고 광야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좋았다. 광야님의 감기가 많이 회복되어서 좋았고 매주 장소 준비로 가족을 섬기는 광야님에게 감사했다. 멋진 모습으로 활력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며 셔츠를 선물했다. 성실님에게 감사 문자와 목도리를 선물했다. 사랑으로 가족을 대하여 인도자로 애쓰는 것에 감사했다. 좋은님을 좋아해서 무엇을 선물할지 고민하고 좋은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다. 화장지를 선물하며 좋은님이 편리하게 사용할 생각에 기분이 좋

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세례를 받고 입교한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내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 기도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 교우들에게 감사 문자를 보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실천하고 살아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목사님의 설교말씀이 생각났다, 배운 것을 실천하며 살겠다, 교우들을 좋아하고 잘 하는 삶으로 기쁨을 누리겠다, 성가대 교우들에게 마사지를 하면서 사귀의 시간을 갖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소식가족

카라님 집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희은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희은님에게 다이어트 볼을 선물했다, 섬김과 격려 주간에 가족들에게 사랑의 실천을 한 희은님이 고맙고 좋았다, 가족 모두와 일대일 만남을 계획하고 약속을 잡았다, 한 명씩을 떠올리며 집중해서 호흡기도를 하고 감사함을 전하며 모두와 만남을 해서 좋았다, 가족들을 많이 생각하고 섬기고, 즐거운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문자를 하고, 면도거품을 준비해서 선물했다, 즐거운님이 더욱 좋아했으며, 고마운 마음도 커졌다, 카라님을 더 좋아

하기 위해서 일회용 반찬그릇을 선물로 준비하며 카라님에게 감사했던 일들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요즘 목이 따갑다는 요한님을 생각해서 가글을 준비했다. 건강한 요한님을 생각하면서 기분이 좋았다, 유랑님을 좋아해서 명란젓을 선물하면서 무척 기뻐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었고, 그 믿음을 교인들에게 가르쳤다, 나 또한 그 믿음을 본받아 부활에 대한 소망을 늘 기억하며, 기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겠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오랫동안 여러 갈래로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위상을 정립한 것 같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교회의 중점사항인 호흡기도와 주기도를 내 삶에 놓고 사는 한 주를 보내겠다, 성가대에게 감사함을 전하겠다, 맑은님에게 감사를 전하겠다, 화음님에게 성탄카드로 감사 표현을 하겠다, 식탁 가족에게 디저트를 대접하겠다, 창윤이에게 선물을 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사랑가족

초록님 집에서 7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생명님과 뿌리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선물을 준비했다, 초록님의 섬김에 감사하며 선물과 문자를 보내면서 기뻐고 감사카드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져서

좋았다, 씨앗님과 진하게 사귀고 씨앗님이 좋아할 만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면서 오랜만에 단둘이 시간을 보내서 참 좋았다, 새로운 가족으로 함께 하는 고래님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고 함께 가족이 된 것에 감사하며 연락하니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다, 섬김님이 가족으로 처음 합류한 2주 동안 섬김님을 좋아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 같은 책을 선물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부활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육체의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사로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 와 닿았다”고 느낌을 나누었습니다.

드림가족

은석님 집에서 5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은석님을 좋아해서 유산균을 선물하고 더 건강해질 은석님의 모습을 상상하는 시간이 좋았다, 은석님이 선물한 장조림을 먹고 건강해져서 감사했다, 드림님을 좋아해서 드림님이 좋아하는 생강차와 대추차, 반찬을 만들어서 선물했다, 계획한 것을 잘 실천해서 좋았고 회사일로 바쁜 드림님이 선물한 음식을 먹고 기운이 나서 지치지 않고 일하고 사랑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은석

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은석님을 위한 중보기도를 했다, 건강하고, 옷 만드는 일을 재미있게 하기를 바라면서 은석님을 좋아하는 한 주였다, 가족과의 약속을 지킨 은석님에게 감사했다, 가족들과 사귀의 시간을 가져서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사람들을 대할 때 지금, 여기의 나의 모습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결는 질하며 판단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보다 내가 제대로 지금 여기에 사는지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겠다, 가톨릭과 개신교가 교리문답에서 차이는 있는 것 같다, 교리를 알고 모르고 보다는 기도를 하여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해 준 교우들에게 감사 표현을 하겠다, 식탁가족에게 안부문자를 하겠다, 늘빛님과 성실님에게 감사 표현을 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친절한 소머즈

성실가족 찬미 정현옥



2015년 예가교회에서 성실가족으로 살면서 올 한 해 친절한 소머즈의 캐릭터로 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소머즈는 소리에 예민한 캐릭터이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그 어떤 소리도 좋은 소리로 듣고,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갖가지의 소리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붙잡으려는 나의 다짐의 캐릭터이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나는 늘 좋고 언제나 내 마음대로 살아질 것만 같았나 보다. 시기하고 판단하는 것은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었다.

나는 이유나 핑계가 늘 있었다. 핑계될 구실이 넉넉했던 나는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다 상대방 탓이라고, 나는 잘 할 수 있다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주변의 환경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의 발을 걸어서 넘어지는 것이라고 눈을 흘기며 내 눈의 들보는 안보고 상대방 눈의 티를 닦하고 5주 기까지 왔다.

사람을 판단하고 시기심으로 눈을 곱게 뜨지 못해서 잘 보이지 않던 나의 문제들이 보이면서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했다.

매일 매일 좋은 삶을 욕심나게 한 목사님의 말씀도 내가 깨달아 실천하기 전에는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흘러가버린 듯 했다. 지금까지도 쇠귀에 경 읽기처럼

들리던 가르침이 콩나물시루의 물은 흘러 내려도 콩은 싹을 틔우고 어느덧 콩나물이 되어있듯 나도 조금씩 싹을 틔우려고 껍질이 벗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이다.

요즘은 사람을 좋아하려고 하고, 좋아하게 되고 사람을 더 좋게 보려고 하는 나를 보게 된다.

어떤 물건을 보면 ‘이건 누구에게 잘 어울리겠다, 이걸 누구에게 선물하고 싶다, 이 음식은 누구랑 함께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을 보면서 말이다.

바람 쐬러 가고 싶다는 나의 말에 나의 인도자 성실님은 지체 없이 그 맑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나에게 “언니 언제든 하루 나들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제게 연락하세요. 당장 짐 싸가지고 나올 테니까” 이 말에 당장 떠나고 싶은 마음과 안떠나도 될 것 같은 위로가 동시에 들었다.

이렇듯 때로는 언니 같고 때로는 친구같이 그 자리에 서서 나의 믿음의 동지로 밀고 끌어주는 성실님이 있고, 내가 제대로 잘 못해도 잘한다고, 잘 할 수 있다고 칭찬과 격려로 힘주며 함께 가려고 기다려주고 손잡아주는 버팀목 같은 광야님, 바다, 빌립, 좋은님과 함께 하는 성실가족이 있어 나의 하루하루는 좋아지고 있다.

남은 6주기는 호흡기도로 악한 것들을

잘 걸러서 나의 캐릭터 친절한 소머즈로 충실하게 살기 위해 귀를 더 좋게 세운다.





부서별 소식

매월 마지막 주에는 믿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며 기쁨과 감사를 누린 6개의 부서들의 소식을 전합니다. 각 부서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초등부

초등부는 전주여행을 잘 다녀온 뒤, 덴스로 11월을 시작하였습니다. 댄스는 '마카레나'라는 반복되는 춤을 추었는데, 동작이 익숙하고 쉬워서 학생들이 아주 잘 따라 했습니다. 둘째 주는 노래였는데 추수감사주일을 준비로 '손을 높이 들고'라는 노래를 율동과 함께 준비해서 아주 멋지게 잘 하였습니다. 셋째 주에는 다트게임이었습니다. 참여도가 제일 좋은 놀이수업이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는 예배시간이 길어져서 남은 시간에 전주여행을 바탕으로 한 백일장을 하였는데, 학생들 모두 다 시인인 줄 알 정도로 글을 멋지게 썼습니다. 이번 주에 게시판을 확인해 주세요.

넷째 주에는 동극 연습을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초등부 행사 중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이들도 많이 떨려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 기대해 주세요.

학생부

학생부는 11월 14일 추수감사절을 준비하였습니다. 감사찬양과 감사기도를 준비하였고, 성찬준비에 대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일본스피치 작성을 일

요일 아침에 다같이 모여서 하기로 했습니다.

11월 21일에는 성찬준비를 하였습니다. 메뉴는 제육볶음이었으며, 다같이 모여 청소를 한 뒤 각자 장을 보고 요리를 했습니다.

또한 정기모임 시간에는 앞으로 할 예정인 코코아 만들기에 대한 계획을 세웠고 12월에 두 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년부

청년부는 스토리에 따라 Y 팝스타 시즌 1의 마지막 주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정기모임에 모이는데 집중하며, 추수감사예배를 준비했습니다. 2015년 추수감사예배를 함께 준비하며, 청년부가 예년보다 더욱 성장한 것을 확인하였고, 그래서, 더욱 큰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정기모임에서는 청년부원들과 교우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각자 정하고, 정한 것을 지킴으로써 자존감을 키울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나를 목표로, 성경읽기와 호흡기도도 각자 분량을 정하고 실천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성가대

11월 7일 6시에 교회당에서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크리스마스 발표곡으로 '곧 오소서 임마누엘'을 하기로 결정하여 연습했습니다. 매 주일 아침에 모일 때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성가대 송년회는 12월 정기모임 날인 12/5일 토요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편집부

매주 금요일에 모여 편집 작업을 함께 하며 사귀고 있습니다. 매월 넷째 주 오후에는 월간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번 월간 모임에서는 새로운 편집부원 모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편집부에 관심 있는 교우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공동체모임

공동체모임은 11월 5일 목요일 밤 9시에 모여, 목요기도회를 가진 후에 정기협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매월 첫 번째 목요일에 모여서, 함께 기도모임을 갖고, 정기협의를 진행합니다. 11월 12일 오전 10시 30분에는 화해의 시간으로 모여, 예배를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예가 소식 & 공지

1.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땅의 고난을 묵상하는 대림절기 동안 주기도를 따라 기도하면서, 형제에게 잘하고, 좋아하는 삶으로, 우리 가운데서 탄생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절기로 지냅시다.

2. 오늘 설교로 함께 해 주신 광주 주님의 교회 박현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3. 주일 연경반 강의는 자료실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4. STS(Searching The Scriptures) 하반기 강의는 산상수훈에 대한 강의입니다. 자료실에 모두 업로드되어 있으니,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행복을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이번 주 목요기도회는 밤 9시,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목요기도회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목요일 밤에는 소식지를 펼쳐놓고, 교회의 활동과 교우들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6. 2015년 크리스마스는 한 해 동안 사귀어 가진 이들과 친구들을 초청하여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로 갖습니다. 칸타타예배는 가족모임과 부서별 발표회로 대체하여 갖습니다. 이 날 발표를 위한 준비에 적극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녁만찬을 함

께 하는 크리스마스 잔치와 선물나누기, 0시 예배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진행합니다.

7. 호흡기도를 매일 합시다. 호흡기도는 주기도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호흡기도에 힘써서 예수님이 누리신 자존감을 가지고, 통 크고 당당하고 밝은 삶,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교회로 삼시다.

8. 다음 주일 예배위원은 마르다, 희은님입니다. 또한, 오늘 배찬은 교우배찬으로 갖습니다. 예배위원은 한 주간 동안 형제를 좋아하고, 형제에게 잘하는 삶으로 예배를 준비하여 참여하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대접은 소식가족이 대접합니다. 11월 봉헌위원은 바다님, 12월 봉헌위원은 늘빛님입니다.

날짜	성경읽기
월	요한복음서 12장 ~ 요한복음서 17장
화	요한복음서 18장 ~ 사도행전 2장
수	사도행전 3장 ~ 사도행전 7장
목	사도행전 8장 ~ 사도행전 13장
금	사도행전 14장 ~ 사도행전 19장
토	사도행전 20장 ~ 사도행전 25장

* 소식지의 통독표를 따라 읽으면 한 해에 1독 이상을 하게 됩니다.

* 읽고 난 후 교훈을 1개 적고, 교훈에 따라서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1개 적은 후, 그날에 실천합니다. 이 책은 실천이 바로 순종이며, 하나님 나라의 누룩과 같아서 비록 작지만 우리의 삶을 모두 변화시킵니다.

* 예배를 준비하여 드립니다. 예배준비는,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내가 교우들을 좋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